

탈원전 선언에도 한빛 2042년까지 가동 광주시·전남도·영광군 한심한 원전 방재 대책

한빛원전에 위기상황 발생하면...



광주시, 조선대에 41만 명·광주대에 29만 명 수용
 영광군, 31개 학교 보호물품 없고 방호복 등 체형 안맞아
 원전세 매년 450억 받고도 중앙정부 바라보며 '뒷집'
 10억~20억이면 가능한 방재계획 수립 형식적

문재인 정부의 '탈핵 선언'에도, 원자력발전소는 폐연료봉을 비롯한 핵폐기물을 안전한 곳에 영구적으로 격리하기 전까지는 엄청난 위험을 안고 있다.

〈관련기사 2면〉

하지만 영광 한빛원전과 불과 50km 떨어진 광주시는 원전사고 발생시 시민 41만명을 조선대에 대피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워놓는가 하면, 영광군의 경우 지역 초·중·고 학생들의 방호복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는 인구가 150만명이지만 방사선비상계획구역(원전 반경 30km) 밖이라는 이유로, 전남도와 영광군은 매년 원전 운영사인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450억원의 원전세(지역자원시설세)를 받고 있음에도 사실상 중앙정부만 바라보며 뒷집지고 있다는 비난 목소리가 높다.

20일 현재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한빛원전)는 영광 홍농읍에 6기의 원자력발전소를 운영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탈핵선언에 따라 40년간의 수명연장이 불허되면, 한빛 1~6호기까지 6개 원전은 오는 2025년부터 2042년까지 순차적으로 수명이 끝나고 그와 동시에 발전소별로 폐쇄절차에 돌입할 전망이다. 원전 전문가와 원전 방재업계에선 "지금도 지역 실정에 맞는 방재계획 수립의 적기"라며 "한빛원전 사고 영향권에 200만명이 살고 있는 광주시 전남도의 경우 10~20억이면 가능한 방재계획조차 형식적으로 수립한 상태"라고 지적하고 있다.

'핵없는세상광주전남' 역시 "한빛원

전 앞에서 날린 풍선이 1시간만에 28km를 날아간 사실을 실험을 통해 확인했다. 바람에 따라 2시간이면 광주로 방사성물질이 날아오게 되는 것"이라며 지난 2014년 이후 지역 실정에 맞는 방재 대책 수립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광주시의 방재계획을 들여다 보면, 후쿠시마 원전사고(2011년)를 겪었음에도 현실과는 동떨어진 대피계획을 담고 있는가 하면, 영광군의 경우 학생 방호복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는 한빛원전 방사능 위기상황 발생시 조선대에 41만명을 수용하고, 조선이공대는 14만7000명, 광주대 29만명, 송원대 9만5000명을 수용하는 계획을 수립해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발생 지점의 풍향·풍속·누출된 방사선량을 고려하지 않고 관내 각 구·군소 수용 인원을 3.3㎡당 3명으로 산정해 기계적으로 수립한 것이다.

영광군의 경우 관내 초·중·고 31개교, 학생들의 방호복품조차 갖추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학생 6268명 가운데 1515명에게는 방호복, 보안경, 특급마스크, 안전장갑, 덧신 등을 지급했지만 이들 중 일부는 자신의 체형과 맞지 않은 방호복품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4843명은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

지난해 9월 전북도의회에서 후쿠시마 원전사고 사례를 발표했던 이석현 에너지정책연구소 대표는 "원전 사고의 경우 대피는 실제상황과 완전히 다르다. 핵발전소 소재지역, 인접지역은 (정부와 별개로) 사고가 일어나기 전 지금 준비를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광주시의회 이미옥(민중연합·비례) 의원은 "발생자 부담 원칙을 내세워 한수원을 압박하든, 전남도와 함께 중앙정부를 압박하든 조속히 원전방재 대책을 명확히 수립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후손에 남겨줄 광주의 '문화·생태 숲'

'일몰제' 도시공원 어떻게

〈하〉 중외공원

문화벨트 품은 시민 힐링공간
 부동산 개발업계의 타깃으로
 보존 위한 시민적 합의 시급

"중외공원은 장기적 관점에서 우선 보존해야할 광주의 녹색 인프라이자 생태축입니다."

'공원 일몰제' 시행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지에 중외공원이 포함되자 환경·생태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보존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광주시가 보존해야할 공원지구를 정해놓지 않고 공원 일몰제에 해당하는 녹지를 가이드라인 없이 '개발 시장'에 내놓은 조치를 지적하고 있다. 녹지공간을 보존해야할 공공적인 책무를 받고 있다고 있다.

보존 필요성이 강력하게 대두되는 대표적인 공원의 하나는 광주시 북부에 있는 중외근린공원이다. 면적(243만9135㎡)으로 따져 중앙근린공원(293만9337㎡)에 이어 광주에서 두 번째다. 현재 공원으로 개발된 곳은 32만8940㎡이고 나머지 211만915㎡는 미조성 지역으로 이른바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지다.

문제는 지난 1975년 도시근린공원으로 지정된 중외공원은 일곡공원, 운암산 공원을 잇는 광주의 생태축이라는 데 있다. 광주를 띠 모양으로 에워싸고 있는 환상녹지축의 안쪽에 해당된다. 거대한 녹지대여서 다양한 식생이 서식하는 운암제(2만3917㎡)와 용봉제(7000㎡)를 품고 있다.



광주시에 추진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포함된 광주시 북구 중외공원 일대. 공원으로 이미 조성된 시립미술관 일대를 제외한 국립광주박물관 뒤편 매곡산 등 북구지역 드넓은 녹지대가 민간 공원 조성 대상지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중외공원 지정구역



국립광주박물관 북쪽에 자리잡은 매곡산에는 리기다 소나무림, 자생 소나무 군락이 형성돼 도심에 생명을 불어넣고 있다.

중외공원은 위치상으로 광주의 관문이자 문화인프라가 집적된 공간이다. 국립광주박물관·문화예술회관·시립미술관·시립민속박물관·비엔날레전시관 등 공연·전시시설이 밀집돼 문화벨트를 형성하고 있다. 전국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문화공원이자 시민들의 힐링공간이다.

역사적으로도 공공적 기부가 싹튼 곳이다. 이 부지에 포함돼 있는 옛 '광주 어린이대공원'은 옛 전남일보(광주일보 전신) 대표이사였던 김남중 회장이 1980년 부지(20만㎡·6만3000평) 매입자금 12억원을 전액 기부해 조성됐다.

하지만, 중외공원 부지에서 이미 공원으로 조성된 곳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이 특례사업 대상지로 개발되면 광범위한 녹지훼손은 물론 광주의 미관을 해치고 시민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공간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지배적이다. 고층아파트들이 들어서는 등 난개발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시가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지 않는다면 극단적으로 생태공원인 용봉제와 운암제가 부동산 개발업계의 첫 번째 타깃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산이나 녹지를 개발해 택지를 만드는 것보다 저수지를 메우는 게 손쉽게 때문이다.

김영선 환경생태학 박사는 "민간공원 사업을 시행하더라도 운암·용봉제는 반드시 보존해야할 수변공간"이라며 "광주시에 지급이라도 민간개발 대상공원에 대해 보존의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시의 장기적인 대안과 고민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공원부지를 사들일 수 없는 행면이라면 반드시 보존해야할 공간을 정해 시민들을 설득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원 부지 매입을 위한 공채발행, 공원관리 기금 등 현안에 대해 시민적 합의를 구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조동범 전남대 조경학과 교수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가운데 중앙·일곡·중외공원은 생태·경관적으로도 반드시 보존해야할 공원"이라며 "소규모 공원을 엄선해 민간공원으로 개발하되, 생태축을 형성하는 대형 공원은 광주시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반드시 후손에 남겨야할 공간"이라고 강조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 ① 적정 임금 실현
- ② 적정 근로시간 실현
- ③ 원·하청관계 개혁
- ④ 노사책임경영 구현

'광주형 일자리' 밑그림 나왔다

광주시, 22개 기관단체 참여 노사민정 기초협약 의결
 중앙정부와 협력 위해 '일자리정책 특별보좌관' 신설

국으로 확산시키고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위해 '일자리정책 특별보좌관'도 신설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3면〉

광주시는 20일 시청에서 공동위원장인 윤장현 시장과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지역

본부 의장 등 22명의 노사민정 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광주시 더 나은 일자리위원회 회의를 열고 기초협약을 의결했다.

4대 원칙을 핵심으로 한 기초협약 내용은 ▲적정임금(연대임금) 실현 ▲적정 근로시

간 실현 ▲원·하청관계 개혁 ▲노사책임경영 구현 등이다. 이날 협약을 통해 사실상 '광주형 일자리' 모델의 밑그림이 나온 셈이다. 이날 협약에는 한국노총 광주본부와 광주경영자총협회, 광주상공회의소, 광주여성단체협의회, 광주시교육청, 전남대, 조선대 등 22개 기관단체가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또 친환경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사회통합형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연계해 추진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2면으로 계속 / 최원기기자 cki@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3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17]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피부의 균형을 바로잡아 찬란하게 빛나는 궁극의 윤기를 얻다

설화수 윤조에센스

속부터 우러나오는 건강한 피부 윤기. 치유침 없는 균형에서 시작됩니다
 생기, 탄력, 투명, 자생력, 영양의 균형을 바로잡아주는 설화수 윤조에센스

상한 가지 귀한 원료에서 찾은 다섯 가지 성분의 자율탄™이 피부 본연의 윤기를 찾아주고
 피부의 부족한 기운을 채워 가장 이상적인 피부균형을 완성합니다
 매일 아침, 찬란하게 빛나는 윤기피부를 만나보세요

Sulwhasoo

• 설화수 플래그십스토어 및 전국 백화점, 아모레 키오스크를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www.sulwhasoo.com • www.facebook.com/sulwhasoo.official • 플래그십스토어: 02-541-9270 • 고객센터: 080-023-5454 (수신자 요금부담)